

[31차 두산아트스쿨: 미술] 동아시아 3국의 거장들 (정윤아)

10/12 2강. 중국현대미술의 선구자, 우관중

1) 강의 개요

이번 강의는 20세기 중국의 가장 중요한 화가 중 한 사람으로 자리매김한 우관중(Wu Guanzhong, 1919-2010)의 예술 세계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기로 한다. 그는 서양과 아시아 미술의 전통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융합하여 중국 여러 지역의 풍경을 담아낸 평화롭고 아름다운 풍경화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이 점에 대해 그는 자신을 '코끼리(서양의 영향)를 삼킨 뱀(중국 예술가)'으로 묘사하곤 했다. 끊임없는 노력 끝에 수묵화와 유화라는 전혀 다른 매체를 모두 마스터한 그의 회화를 통해서 동서양의 융합을 꾀한 아시아 거장의 예술 세계를 고찰한다.

2) 출생

1919년에 중국 동부지역인 장수성의 한 마을에서 태어났다. 교사였던 아버지의 바람을 따라 교사가 되기 위해 공과대학에 입학했으나, 국립항저우미술원(China Academy of Art)에서 공부하던 주테춘(Chu Teh-Chun, 1920-2014)을 만나 예술을 접하게 되고 예술가가 되기로 결심, 1936년에 미술원으로 전과하여 중국 근대 회화의 아버지로 평가받는 린펑미안(Lin Fengmian, 1900-1991) 수하에서 미술을 공부했다. 입학한 이듬해에 중일전쟁이 시작되어 1942년이 되어서야 졸업을 하게 된다. 졸업 후 대학 건축학과에서 수채화와 드로잉 교수로 일하면서 예술적 기술을 연마하고, 프랑스 유학의 기회를 얻기 위해 틈틈이 프랑스어를 공부하였다. 덕분에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프랑스에서 서양화를 본격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3) 파리 유학 (1947-1950)

1947년 정부 장학금으로 파리에 위치한 상급미술학교(École Nationale Supérieure des Beaux-Arts)에 입학하여 1950년까지 수학했다. 파리의 주요 미술관들을 돌아보면서 후기인상주의 미술에 매료되었고, 특히 반 고흐(Vincent van Gogh, 1853-1890)의 예술과 생애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된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반 고흐가 예술에 대한 열정을 바탕으로 모든 내적 고통을 감내하고 자신만의 독창적인 예술 세계를 일구었기 때문이다. 3년간의 프랑스 유학 기간 동안 그는 이후 자신의 예술 세계를 구축하는 데에 있어서 기본적인 기반이 되는 형식주의적 형태와 구도에 대한 이해를 얻었다.

4) 중국 귀환

파리에 남은 동료 중국 예술가들과 달리 우관중은 고국에 기여하고 싶은 마음에 서둘러 귀국을 결정하고, 베이징 중앙미술학원(Central Academy of Fine Arts)에서 서양 미술의 새로운 측면들을 학생들에게 소개하였다. 이후 1953년부터 1964년까지는 청화대학교(Tsinghua University)에서, 그 후에는 베이징미술사범대학에서 가르쳤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시간이 날 때마다 여행을 다니며 중국의 광활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그림을 그리거나 스케치할 수 있는 자유로움을 즐기게 되었고, 이것이 그가 풍경화로 전환한 계기가 되었다.

5) 문화혁명

1966년 8월, 모택동의 문화혁명으로 인해 우관중은 '부르주아 형식주의자'로 낙인찍혀, 7년 동안이나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는 것을 금지 당하였다. 1970년, 51세의 나이에 그와 그의 아내는 공산당의 대규모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거의 3년간 시골로 파견되어 수작업 노동에 할당되었다. 이 시기에 많은 예술가들이 박해 받거나 심지어 사형 당한 소식을 접한 우관중은 누드화 등 자신의 초기작 대부분을 소각해야만 했고, 심리적으로 큰 상처를 받게 된다. 1972년, 문화혁명이 완화되면서 베이징으로 돌아온 그는 본격적으로 수묵화를 연마하기 시작, 유화로 풍경이 지닌 형태의 아름다움에 집중하며 유화 기법을 개발하는 한편, 종이에 먹과 색상을 사용하여 유화와는 다른 아름다움과 형태를 달성하기에 이른다.

6) 형태의 아름다움을 담은 풍경화

문화혁명 시기에 심각하게 핍박받은 중국 예술은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영웅적인 노동자, 농부 및 군인이 등장하는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회화 스타일만이 난무하였다. 1976년, 모택동 사망 이후, 우관중은 모든 제약에서 벗어나 「회화에서 형태의 아름다움」이라는 제목의 에세이를 작성하여 형식주의에 대한 자신의 이론을 재개하고, 뒤쳐진 자국의 미술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였고, 이후 수 십년간 수묵화와 유화를 통해 중국 전역의 아름다운 풍경을 담아내면서 중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예술가 중 한 명이 되었다. 2010년 90세로 사망하기 전에는 상하이미술관과 중국국립미술관에서 두 개의 대규모 회고전을 개최하였다.

7) 경험과 감성의 풍경화

우관중은 서양 유화의 색감과 구성감을 결합하면서 중국 수묵화에서의 정신, 가벼운 손길과 음영 변화를 표현했다. 그는 사실보다는 감정의 예술가였으며, 그의 그림은 시각보다는 경험을 담고 있고, 관객이 그림 속 풍경을 거닌다고 느끼게 하는 그런 이미지를 완성해 내었다. 또한 풍경화 스타일에 있어서 완숙함을 더하면서 한편으로 대범한 추상적 형태를 개발하였다. 그의 예술과 감상하다 보면, 수많은 요소들이 전체를 구성하는 훌륭한 느낌이 있으며, 그중에서 가장 작은 요소 하나만 빠져도 전체가 붕괴될 정도로 섬세하고 우아한 구성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